

# 개안수술 감사기도회 봉헌

- 서울·광주·대전에서 -

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영세민 무료 개안수술사업으로 육신의 빛을 찾은 이들이 서울·광주·대전에서 개안수술 감사기도회를 갖고 빛을 되찾게 해주신 하느님과 헌금자·의료인·봉사자들에게 감사하고 광명을 되찾은 기쁨과 감격으로 이 세상의 어둔 곳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.

서울에서는 1985년 10월 25일 강남성모병원 강당에서 거행된 감사기도회 미사는 주교회의의 장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 본 협회장 김대군 신부 등 10명의 사제가 공동 집전했으며 수혜자·의료인 등 250여명이 참여,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했다. 감사미사에 이어 거행된 기념식에서 이양래씨(68, 인천)는 수혜자 대표 인사를 통해 『200주년기념사업으로 재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돼고 마을 뿐』이라면서 『수혜자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합심하여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』고 말했다. 또한 추기경은 개안수술사업을 주관한 본협회회장 김대군신부를 비롯 12명의 의료진에게 감사장을, 수혜자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했다.

광주에서도 같은날 가톨릭센터 7층 강당에서 교구장 윤공희대주교 주례로 수혜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감사미사를 봉헌한 후 수혜자들에게 다과를 배풀고 안과상담과 진료등을 가졌다.

또한 대전에서는 1985년 11월 6일 가톨릭문화회관강당에서 경감룡주교 주례로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안과상담과 진료를 배풀고 수혜자들에게 다과를 대접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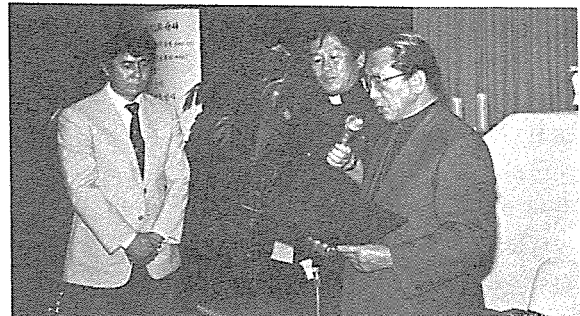
강남성모병원에서 김수환추기경 주례로 봉헌된 서울 지역 감사기도회



수혜자대표 이양래씨가 증정한 휘호를 받고 설명을 듣고 있는 김수환추기경



가톨릭센터에서 윤공희대주교 주례로 봉헌된 광주 지역 감사기도회



개안수술 지정병원장(광주 흥안과)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윤공희대주교